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최근 첫 수혜자 나오며 가입 효과... 주민홍보 주력

임실군이 군민 안전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최근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군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두명이나 연이어 나왔다. 지난달 10일 관촌면에서 발생한 SS기 농기계 전복 사망사고와 같은 달 12일 강진면에서 발생한 경운기 전복 사망사고에 대해 각각 800만원씩 지난 달 30일과 이달 5일에 보험금

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했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내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역은 화재·자연재해(열사, 일사병 포함)·대중교통사고·농기계 이용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애'로 구분되며,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스콜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애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오수면 주민 윤모(73)씨는 “농사를 짓고, 시골에 살다보면 애기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군에서 보험료까지 내서 보호해주니 너무 좋다”며 “임실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군민안전 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행정 및 생활 용어 550건 순화 추진

고수부지→둔치, 노임→품삯... 일본식 한자어 등

순창군이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일본식 용어와 외래어 등 550건을 선정,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기로 했다. 문서 작성 기준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문서나 행정용어에는 여전히 어법에 맞지 않는 말, 일본식 용어, 혹은 너무 어려운 한자어들이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은 최근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 외래어, 어려운 한자어 등 모두 550건의 용어를 선정해 공직자들부터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발표했다. 이 용어들은 그간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것으로, 일본식 한자어인 '고수부지(高水敷地)'는 '둔치'로, '고지(告知)'는 '알림'으로, '노임(勞賃)'은 '품삯'으로 순화해 사용하게 되며, '리더십', '리플릿', '세미나' 등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는 '지도력', '광고지·홍보지', '발표회·연구회'와 같은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노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산 불매운동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평소 공직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질 것을 강조해 온 황숙주 군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강성언 행정과장은 “올바른 공공용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업이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 신조어는 피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복흥 오미자 축제 개최

21일 · 22일 복흥면 정산체육공원

순창군의 우수한 품질의 오미자를 직접 수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제4회 순창 복흥 오미자 축제'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순창군 복흥면 정산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순창군 복흥면 오미자 작목회(회장 박현용)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지난해 오미자 생산량이 부족해 열리지 않아, 올해 축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다. 해발 300~400m 내륙에 위치한 분지

형 준고령지에서 재배되는 복흥 오미자는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되어 고유의 색과 향, 그리고 오미자 특유의 다섯 가지 맛(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짭맛)을 느낄 수 있다. 복흥면에서 재배되는 오미자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지면서 소득 작목으로 현재 복흥에서는 100여 농가가 30ha 규모로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다. 복흥면 오미자 작목회는 이번 축제

로 품질 좋은 복흥 오미자를 전국에 알리고, 문화행사를 통한 도농교류의 장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오미자 수확체험과 다양한 오미자 이용한 음식 시식, 오미자 음료 시음,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다양한 공연 등도 준비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박현용 회장은 “복흥 오미자 축제는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축제”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복흥 오미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순창군을 전국에 알리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소설 '혼불' 무대 서도역 가을음악회

20일 남원시 사매면 옛 서도역서 열려

근대 소설의 백미로 불리는 혼불의 배경지인 남원시 사매면 옛 서도역에서 서도리 주민들이 주관하는 '2019 서도역 가을음악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음악회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는 서도리 주변마을 주민들의 숨은 재능을 뽐내는 음악경연과 장기자랑이 진행되며, 2부에는 남원통팍 팹캐스트 라이브 라디오 방송이 진행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남원지역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로 노봉마을 불박공연팀의 혼불아리랑, 남원시 청소년들의

비트박스 및 댄스공연, 국악가요, 7080 통기타 라이브공연, 가곡, 트로트, 밴드음악 등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이번 가을음악회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스스로의 축제 역량을 높이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시 농촌활력과 배세근 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 스스로 활동하는 공동체와 마을을 적극 발굴, 농촌공동체 복원과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있다.

남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박차

저소득계층,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3~5년 무상 공급

남원시는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지역 활동가 등에게 임대주택을 3~5년 동안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의 지원금은 1채당 최대 2천만원으로 자부담은 5%이상이며, 남원시는 관내

10동의 농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주변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2015년부터 총 11개 빈집에 1억5백만원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3월 빈집 10동을 선정해 7동을 사업 완료하였고, 3동은 11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17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문화 의원, 부위원장에 손종열 의원을 선출하고, 김종관, 김영태, 김정현,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의원 등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예 구성원 예결특위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활동에 돌입한다. 박문화 예결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인정하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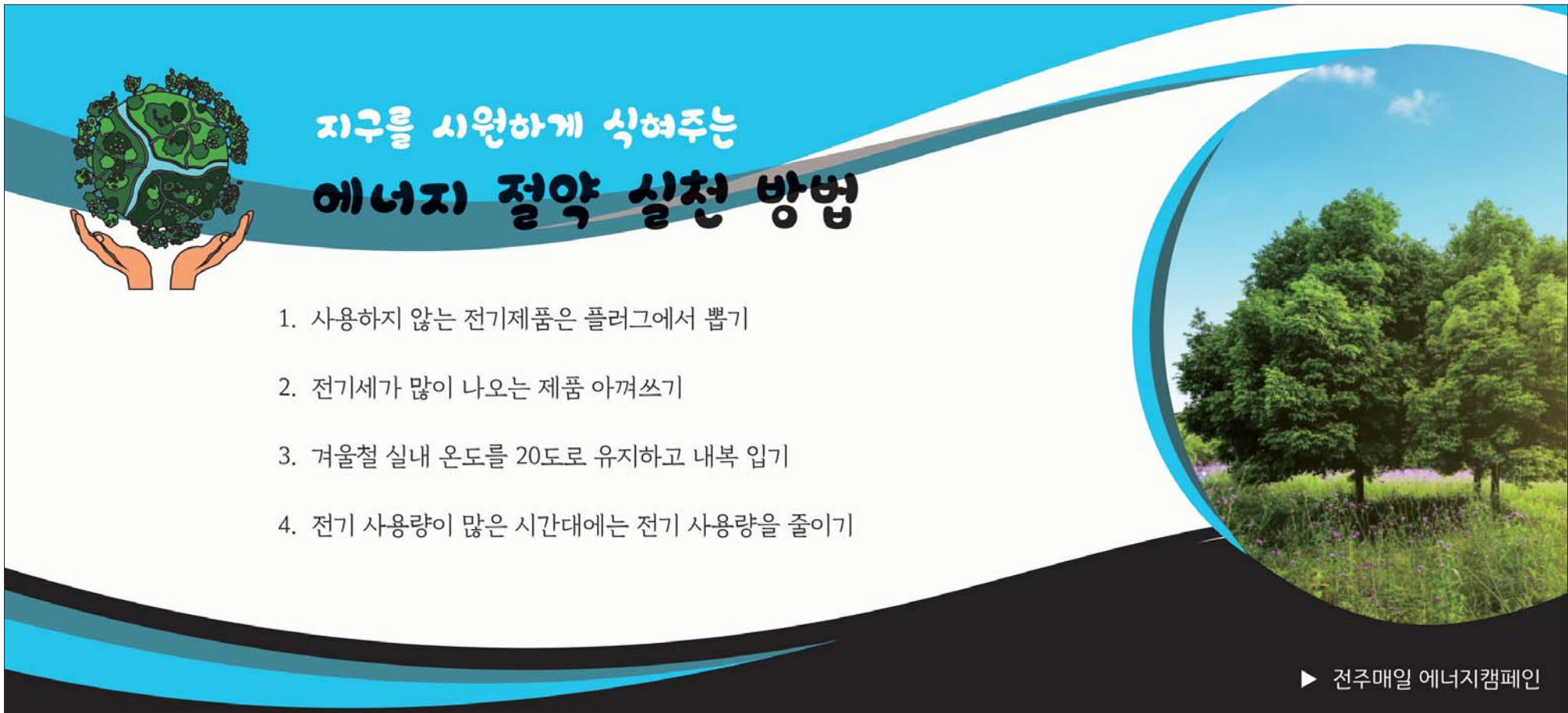
임실군 주거급여 지원사업 실시

기존 중위소득의 44% 이하

임실군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한다. 군은 국토교통부, 전북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 연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최고지원액 내에서의 실질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지원해 준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부양능력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부양의무자에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202만9천원)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관계, 자가 등 주택조사 실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밖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640-22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